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습지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 N 엠티처

www.m-teacher.co.kr

vol.20 | 2018년 5월호

교육 초대석

교육계 주요 인사 혹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들어보며 앞으로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봅니다.

공공 얼어붙었던 한반도 정세가 정상회담 논의 등으로 인해 화해 무드로 돌아서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 특히 통일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은 지금의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에서 '통일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는 상황.

문제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이다. 통일교육을 진행하는 학교는 많지 않고, 설령 진행된다 하더라도 교사가 통일의 당위성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은 학생 스스로 탐구하며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고, 학습의 필요성도 깨닫는 최근의 교육 흐름에도 반하는 것.

경직된 통일교육.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경기 지역 중·고 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생참여활동 중심의 '공감 통일동아리' 프로그램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둠활동을 기반으로 한 토론, 토의 등을 통해 북한 사회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통일 전후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스스로 모색해본다. 교사의 설명을 통해 통일의 당위성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며 자연스럽게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 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한 변준희 통일 드림 사무총장을 최근 만나 통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방법에 대해 묻고 들었다.

'통일드림'은 통일부 통일교육원이 양성한 통일교육 전문 강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로,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채로운 교육·문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변 사무총장과 통일드림 소속 전문강사들은 지난달 출간된 '공감 통일동아리 지도안' 집필에도 참여했다.



통일교육… “통일 시대 시민으로서의 역량 길러내는 교육”

“통일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사가 일방 적으로 ‘통일은 꼭 필요하다’고 아무리 외쳐봤자 어린 학생들은 공감 하지 못하지요. 그보다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인가’를 다방면으로 고민하도록 해 통일 시대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길러내 는 한편 이를 통해 스스로 통일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통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변준희 통일 드림 사무총장)

변 사무총장이 말하는 통일교육 키워드는 ‘역량 중심의 교육’. 통 일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통일 이후 발생할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탐구하는 활동위주의 교육을 통해 통일 시대 주역이 될 학생들의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 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통일의 필요성도 체감할 수 있다.

변 사무총장이 말하는 통일교육은 어떻게 진행될까? 공감 통일동아리에서 진행되는 ‘남녘말 북녘말 통합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 활동은 같은 의미를 지닌 남북한의 어휘를 각각 살펴봄, 통일이 되면 어떤 단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모둠별로 의논해보는 활동. 오랜 분단으로 남북한이 사용하는 어휘는 크게 다른데, 통일 후에 의사소통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어휘는 어떻게 통일해야 할지를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다.

변 사무총장은 “지식 전달 중심의 통일교육 수업에선 단순히 ‘남북한의 어휘가 이렇게 차이나는구나’라는 점만 배우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역량 중심의 통일교육에선 토론·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 결해보면서 통일을 대비하는 역량을 키운다”면서 “특히 ‘언어’라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통일문제를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통일교육으로 진로탐색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역량 중심의 통일교육은 일거양득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통일교육을 학생들의 진로 탐색으로까지 확장시키는 것.

변 사무총장은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외교 등 다 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학생들이 통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방법을 고민하다보면 자연스레 이와 같은 광범위한 사회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의 폭이 넓어지면서 자신 의 진로도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통일교육을 통해 북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접한 학 생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인권 변호사’ 직업에 대해 탐색할 수 있고, 통일 후에 우리나라 사회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재정립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다가 ‘정책 전문가’ 진로를 탐구해볼 수도 있는 것이다.

“북한의 관광 명소 가이드, 북한 자원 개발자, 남북한을 잇는 철도를 설계하는 직업 등 통일된 우리나라에 어떤 직업이 생겨날지도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일교육은 진로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생각의 폭을 확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바르게 내다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장점도 있지요.”(변 사무총장)

“통일교육, 일단 교과수업과 연계해보세요”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교사들은 많지만 연간단위로 교육 일정이 빡빡하게 짜인 학교 현장에서 갑자기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 대안은 없을까?

변 사무총장은 교과수업 시간에도 충분히 통일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교과목의 특성을 고려해 한반도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학생들이 해당 교과를 통해 성취해야 할 학습목표도 달성하면서 통일교육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역사 수업에서 고려 말 정몽주가 이방원에게 피살된 '선죽교'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면 선죽교는 북한 개성에 있다는 사실을 공부하고 북한에 있는 다른 유적지도 더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고, 식물을 공부하는 과학 수업에서는 비무장지대(DMZ)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을 탐구해보며 분단의 아픔을 되새겨볼 수도 있다.

“사회 교과에서는 헌법을 공부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탐구한 뒤 남북 분단으로 인해 침해받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토론해보는 것이지요. 학생들은 헌법에선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규정하지만 분단으로 북한 여행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단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제약하는지 깨닫고, 통일의 필요성도 느낄 수 있습니다. 통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의지와 관심입니다. 통일문제는 다양한 분야와 연결된 만큼 거의 모든 교과에서 통일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는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변 사무총장)

▶글·사진 김효정 기자 hj_kim86@donga.com